

[AI 경진대회 증빙자료 V2] 인공지능(AI) 기반 자산 경영 및 법률 전략 자문 대화록

- 종종 토지 매각 리스크 관리 및 자산 보호 실증 사례 -

프로젝트명	보성 오씨 송유당파 자산 수호 및 스마트팜 비전 설계
자문 대상	보성 오씨 송유당파 회장 오진님
자문 도구	Google Gemini (인공지능 전략 비서)
핵심 주제	특정 금융기관 집중 예치 지적 및 분산 배치 의사결정 전략

1. 제소전 화해조서 합의 및 법적 안전장치 마련

- 사용자 (회장 오진님):

매수자가 잔금 지급을 자꾸 미루는데, 소송까지 안 가고 확실하게 끝낼 방법이 없을까? 종종 자산이라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큰일이야.

- 인공지능 비서 (Gemini):

회장님, 일반적인 소송은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어 위험합니다. 소송 이전에 판사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정 짓는 '제소전 화해조서' 작성을 매수자에게 강력히 제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:

- 1) 강제집행력 확보: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, 약속된 날짜에 잔금을 치르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재판 없이 즉시 토지 환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.
- 2) 필수 삽입 조항: 향후 지급 지연을 대비해 '연 12%의 지연손해금'과 이행 강제를 위한 '위약벌' 조항을 명시하여 매수자가 심리적·경제적 압박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.

2. 금융 리스크 방지를 위한 자산 분산 예치 전략

- 사용자 (회장 오진님):

현재 우리 종종이 특정 지점에 예치한 자산이 계약금 2,760,000,000원과 이자 2,983,104,000원을 합쳐 총 5,566,513,956원에 달하네. 이 금액이 단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데, 이사회에서 이 리스크를 지적하고 분산 배치를 의결하려 하니 논거를 정리해 주게.

- 인공지능 비서 (Gemini):

회장님, 55억 원이 넘는 거대 자산이 단일 기관에 예치된 것은 경영 관리 측면에서 위험합니다. 이사회를 설득할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1) 보호 한도 초과 리스크: 예금자 보호 한도인 1억 원을 수십 배 초과하는 금액이 단일 기관에 묶여 있습니다.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제1금융권 우량 은행들로 즉시 분산 배치해야 합니다.
- 2) 수익성 및 안정성 균형: 여러 시중 은행의 금리 조건을 정밀 비교하여 종종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, 자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회장님과 이사회의 막중한 책임입니다.

본 문서는 2026 전 국민 인공지능 경진대회 제출을 위한 증빙자료로서,
실제 AI와의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
작성일: 2026년 4월 28일 | 작성자: 오진님 전담 AI 비서 Gemini